

'30만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

강임준 시장, 삼성 전장산업 군산 투자 유치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은 9일 삼성의 군산 투자유치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30만 군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삼성 '전장(電裝)' 산업 군산투자유치 건의문을 직접 청와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강 시장이 직접 전달한 건의문에는 군산이 한국지엠, 타타대우 등 20년 이상 상용차와 승용차를 생산해오며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다져진 곳으로서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삼성의 전장산업 투자 최적지임을 주장했다.

또한 군산이 미래형 보완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유치에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삼성의 전장 부문 군산 투자는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이번 청와대 방문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된 절박한 현실 속에서 "군산을 살리겠다"는 노력이 신속하고도 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 나서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일 발표된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따라 삼성의 전장산업에 대한 군산 투자를 30만 군산시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삼성에 알리기 위해 시장이

직접 건의문을 전달한 것.

강임준 군산시장은 건의문에서 "현재의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의 전장산업 군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삼성의 전장산업에 대한 군산 투자는 삼성그룹이 밝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방안의 참 뜻에 부합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삼성 '전장(電裝)' 산업 군산투자유치 건의문을 10일 각 정당 대표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국회, 기재부, 산자부, 삼성 측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축산악취 해소 나선다

익산시가 여름철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축산악취는 환경부에서 단속위주로 접근했으나 이번 특별점검반은 미래농정국 축산부서 주관으로 운영하면서 축산농가와의 업무연관 등을 집중해 운영하는 등 근본적인 악취해소에 필요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특별점검반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미래농정국 국·과장 및 계장 등 5개반 15명으로 편성해 매일 악취취약시간인 밤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축산악취 중점관리대상인 축사밀집지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악취 해결에 나선다.

한편 현장점검 중 악취가 발생할 경우 미생물제제 살포 및 농장주에게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합영 상지원 현장방문 시, 상지원 내 악취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개보수 공사를 폭염기간이 끝나고 하도급 지도하고, 특별현장점검반은 폭염 해제시까지 상지원 공공처리장 등에 미생물제제 살포해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폭염 및 악취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관리로 축산악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폭염속에서도 발로 뛰는 행정 펼친다

고석권 군산시 옥서면장, 폭염 피해 대비 현장 방문

군산시 옥서면 고석권 면장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주민들과 농업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자로 새로 부임한 고석권 면장은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불편한 점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했다.

고 면장은 가뭄에 취약한 밭작물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양수펌프 및 살수 차량 지원 등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조하며 폭염해소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농정현장을 돌아본 후 밭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지원책으로 면 관용차에 설치한 물탱크를 이용해 용수를 공급하고 보유 중인 양수기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모든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



고석권 면장이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불편한 점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했다.

했다.

고석권 옥서면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관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남중동단체협의회 삼계탕 나눔 행사 열어

익산시 남중동단체협의회는 9일 남중교회에서 어르신 180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삼계탕 나눔 행사는 새마을부녀회를 비롯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발전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화목회, 자율방범대, 아름다운봉사단, 밥길지킴이 등 남중동 10개 단체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무더위에 지쳐있던 체력을 삼계탕을 통해 다시 찾는 느낌"이라며 "뜨거운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삼계탕을 끓여줘서 고맙고 귀한 자리를 마련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병순 부녀회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시작했다."

연일 40도에 가까운 폭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이번 행사가 취약한 환경의 어르신들과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삼계탕 한 그릇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익산시가 10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인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420호이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견제출 개별통지 과정을 거쳐 9월 28일자로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이례적인 폭염으로 문밖출입을 자제하는 요즘 열람기간을 놓쳐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 고지서에 다양한 시장자료를 담아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8월에는 익산시 12만 세대에 발송된 주민세 고지서에 2018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 익산 정보를 담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성료

군산시는 9일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위원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어린이행복도시 산 및 아동친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본으로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제2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계획(안) 심의를 진행했다.

강임준 시장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어린이들의 행복에서 더 나아가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 돌봄, 놀 권리, 부모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9월 13일과 14일 군산세만급권벤션센터에서 부모교육을 통한 아동권리 증진을 주제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제2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협의회 57개 회원도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3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종합방제 주력 당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지역 내 벼 1모작 출수가 14일 전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수를 전후해 벼 병해충 예방과 종합방제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실시한 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정밀 예찰결과에 따르면 벼멸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흰등멸구와 흑명나방과 같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이 약간씩 발견되고 있어 고온지속으로 증식이 빨라지거나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출수기 이후 잎집무늬마름

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등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등은 벼 비래해충 예찰정보에 따른 사전방제가 중요하며 1차 방제는 밀도를 줄여 주기 위해 8월 상·중순 비이삭이 나오기 전에 도열병 및 잎집무늬마름병을 포함한 병해충 방제와 함께 종합방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전년도에 발생이 많았던 월동해충인 벼 먹노린재가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동부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출현했으며 먹노린재 피해

예방을 위해 다른 해충과 동시에 방제가 필요하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벼 병해충은 발생 후 치료보다 예방차원에서 미리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며 "출수기를 전후하여 벼 병해충 종합방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